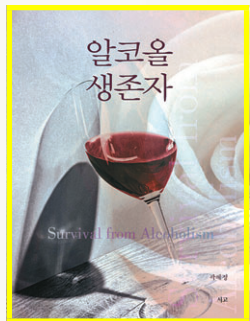


K씨 “책 출간 강행” 백 “판매금지 소송” ‘진흙탕 싸움’ 양상



배우 백윤식이 2013년 교제한 30세 연하 전 연인 K씨와 법정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K씨는 지난달 28일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했고, 백윤식은 조만간 K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다. 작은 사진은 문제가 된 에세이집 ‘알코올 생존자’.

스포츠동아 DB

K씨 “허위 합의서 작성” 백 고소
백윤식 “직접 서명했다” 맞고소
책 1쇄 1000부 매진…오늘 발송

배우 백윤식(75)과 서른 살 연하의 전 연인이자 지상파 방송사 기자인 K씨의 해묵은 교제 및 결별 과정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2013년 1년여 동안 사랑하다 헤어지며 한 차례 부딪혔던 두 사람이 최근 K씨가 당시 이야기를 포함한 에세이집을 출간하면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자칫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소” “맞고소”

2일 스포츠동아 단독 취재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백윤식

을 고소했다. K씨는 “2013년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허위 합의서를 백윤식 측이 작성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등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윤식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오후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K씨가 겪은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한 합의했다”면서 “합의서에도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K씨가 9년 전 합의를 정면 위반해 백윤식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출간하고, K씨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면서 백윤식이 K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을 밝혔다.

●백윤식 VS K씨…갈등의 시작은?

2013년 이후 9년 만의 갈등은 지난달

말 K씨가 자신의 인생에 관한 에세이집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K씨는 출판사를 통해 2013년 당시 “66세 남자배우”인 백윤식과 “36살 여기자”인 자신이 사랑에 빠져들기까지 과정과 결혼 및 임신·시험관 아기 출산 계획, 결별에 얽힌 이야기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당시 서른 살의 나이차를 극복한 사랑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지만 직후 헤어졌다. 그 과정에서 K씨는 “백윤식의 두 아들인 연기자 도빈·서빈 형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은 그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타지오는 “2013년 K씨가 백윤식에게 인간적인 사과를 전했고, 진정성을 느낀 백윤식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 원만한 합의했던 일”이라며 K씨의 에세이집 출간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심문이 진행됐고, 4일 두 번째 심문이 열린다.

●“책 출간은 예정대로”

백윤식과 K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은 당분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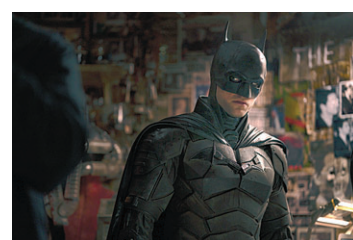
판타지오는 이날 “이미 8년 전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로 종결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배우의 실명을 거론하고, 책 출판을 강행하고 있는 K씨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씨와 출판사 측은 출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날 출판사 관계자는 “에세이집 1쇄 1000부가 이미 예약 주문으로 매진됐다. 현재 2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쇄 주문 분량을 3일 독자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으로, 출간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더 배트맨’ 개봉 첫날 19만2341만명 봤다



영화 ‘더 배트맨’이 올해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더 배트맨’은 개봉날인 1일

전국 관객 19만2341만 명을 모았다. 이는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개봉일 최대 관객 기록이자 ‘다크나이트 라이즈’(오프닝 44만 명) 이후 ‘배트맨’ 시리즈 오프닝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북미에서도 4일 개봉 첫 주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이 예상되면서 전 세계 극장가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샤이니 키·박나래 등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샤이니 키

그를 샤이니 키, 개그우먼 박나래, 래퍼 한해, 방송인 불, 김용만,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들 등 스타들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키와 박나래, 한해, 불이 고정 출연 중인 tvN ‘놀라운 토요일’은 측은 “이번 주 계획된 녹화가 없어 방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에 이어 김용만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SBS ‘호구들의 비밀과의’는 예정된 녹화를 취소했다. 현진을 제외한 멤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걸그룹 이달의 소녀는 엠넷 ‘퀀텀2’ 녹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선, 31km 마라톤 완주 1311만원 기부금 전달



선

가수 선이 삼일절을 맞아 31km 마라톤 완주에 성공, 1311만원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선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해비타트와 ‘2022 버추얼 3.1런’ 행사를 진행했다. 기부금은 전남 화순, 경기 동두천, 충남 청양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3세대를 위한 보금자리 건설에 사용된다. 선은 2시간 48분 33초의 기록으로 31km를 완주했다. 선과 함께 배우 진선규, 윤세아, 슈퍼주니어 최시원, 전 축구선수 이영표, 조원희 등도 참여했다. 선과 한국해비타트가 2020년부터 달리기 행사로 모은 금액은 11억4000만 원에 달한다.

배우 유승호, YG엔터테인먼트에 새 등지



유승호

배우 유승호가 YG엔터테인먼트에 새 등지를 틀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일 “탄탄한 연기력과 진정성 넘치는 행보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유승호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 다방면으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에는 김희애, 차승원, 최지우, 장현성, 강동원, 유인나, 수현, 이성경, 장기용, 이수혁, 경수진 등이 소속돼 있다. 최근 KBS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촬영을 마친 유승호는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씨스타 출신 소유, 12년만에 첫 단독 콘서트



소유

그를 씨스타 출신 소유가 데뷔 12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 2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따르면 소유는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더 라이브: 나잇’을 개최한다. 소속사는 “소유가 오랜만에 팬들과 대면하는 자리를 만든 만큼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유의 따뜻한 라이브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0년 씨스타로 데뷔한 소유는 그룹 해체 후 2017년 솔로 가수로 홀로서기 했다.

할리우드도, 넷플릭스도…“러시아 보이콧”

한국제영화제, 러시아 참여 거부
넷플릭스도 러 서비스 거부 밝혀
록밴드 그린데이도 러 공연 취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 제재 행렬에 문화계도 동참하고 있다. 세계 영화산업을 주도하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러시아에서 신작을 개봉하지 않기로 했다. 유수의 영화제들도 러시아 대표단의 참여 거부나 관련 반전영화를 상영 등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일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는 올해 러시아 공식 대표단이나 정부 관계자의 영화제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도 우크라이나 동

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다룬 영화 ‘리플렉션’을 우크라이나와 연대의 의미로 로마·밀라노·베니스 등에서 무료 상영할 계획이다. 이날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는 러시아를 규탄하며 향후 러시아 관련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영화계 움직임은 할리우드의 메이저 배급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입장을 밝히면서 확산하고 있다. 월트디즈니·워너브라더스·소니픽처스 등은 글로벌 티켓 판매량의 2.8%(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월트디즈니는 1일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의 신작 ‘터닝 레드’를 러시아에서는 개봉하지 않겠다”면서 할리우드 스튜디오로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보이콧했다. 이와 함

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긴급 구호품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배급사 워너브라더스가 1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 ‘더 배트맨’의 러시아 공개를 취소하며 힘을 실었다. ‘더 배트맨’은 워너브라더스의 올해 최대 기대작인 블록버스터 영화로 이미 러시아에서만 20만 달러(약 2억4000만 원)어치 티켓이 판매됐다.

현재 러시아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톰 홀랜드 주연의 액션 블록버스터 ‘언차티드’를 배급한 소니픽처스도 이후 기대작인 마블 안티 슈퍼 히어로물 ‘모비우스’를 러시아 극장에 걸지 않기로 했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도 동참했다. 넷플릭스는 하루 이용자 수 10만 명을 웃도는 콘텐츠 제공 플랫

폼을 러시아 국영 채널 콘텐츠를 서비스해야 한다는 현지 당국의 지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음악계의 러시아 보이콧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대표 록밴드 그린데이와 미국 팝밴드 AJR이 5월과 10월 예정한 러시아 공연 일정을 취소했다. 유럽 최대 음악 페스티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도 5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릴 무대에 러시아 가수를 무대에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전을 부르짖는 세계적 스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데드폴’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블레이크 라이블리 부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기부했다. 앞서 한국배우 이영애도 1억 원을 기탁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단편영화 연출자로 변신한 스타들

조현철 단편영화 ‘부스럭’ 4월 선배
연출 경험 많은 류덕환도 신작 준비
손호준, 유튜브 통해 ‘개살구’ 공개

배우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연출한 단편영화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웬만한 장편영화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제작할 수 있고, 연출의 꿈을 지닌 자신들의 재능과 개성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등 온

텐츠 공개 플랫폼이 부쩍 늘어난 것도 기회로 다가온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조현철은 ‘부스럭’을 OTT 티빙의 단편영화 프로젝트 ‘전체관람가+·숏버스터’를 통해 4월 선보인다. 헤어진 커플이 겪는 미스터리한 일을 그린 작품으로, 천우희와 직접 주연도 했다.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연출을 전공하며 이미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한 이력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역시 다수의 단편영화 연출 경험을 지닌



조현철

류덕환

류덕환도 ‘전체관람가+·숏버스터’로 신작을 내놓는다. 각본과 연출을 맡아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 단편영화 ‘내 아내가 살아 찢다’가 이미 누적 조회수 62만 회를 기록하며 누리꾼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손호준과 윤계상도 유튜브를 통해 연출작을 소개했다. 손호준은 지난해 자신의 유

튜브 채널에서 한 남자의 내면을 그린 단편영화 ‘개살구’를 선보였다. 연출·각본·연기는 물론 촬영장소 섭외 등 모든 제작 과정을 감당했다. 윤계상도 자전적 경험을 담은 페이크 다큐멘터리 ‘테이블’의 시리즈로 팬들을 만났다.

앞서 지난해 말 이제훈·박정민·손석구·최희서가 OTT 왓차와 손잡고 내놓은 오리지널 단편영화 프로젝트 ‘언프레임드’는 이미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이제훈의 ‘블루 해피니스’, 박정민의 ‘반장선거’, 손석구의 ‘재방송’, 최희서의 ‘반디’로, 왓차 공개에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 상영해 입소문을 얻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